동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년 제3회 실무협의체 회의록

일 시	2021.06.14(월) 16:00~17:00	방 법	ZOOM을 통한 온라인회의
참석자	**총 15명** ▪ 위원장 : 유명환(1명) ▪ 위 원 - 민간위원 : 김성남, 이진선, 강상묵, 한미영, 장광철, 김영준, 김현미, 윤창영, 김형태, 박윤진, - 공공위원 : **정금정,** 이창일(2명) ▪ 참석 및 참관 : 정호희(담당), 임주영(복지정책과)		
안 건	1) 2022 복지정보공유플랫폼(누리넷)구축 추진 설명회 2) 실무분과 조직개편 보고 3) 사회복지행사 추진방향 논의		

회의내용	
복지정책과 정호희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정호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랜선을 타고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유명환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랜선 상태가 불안정하여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3회 실무협의체 회의 자료를 보시면 기본 안건이 총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복지정보 공유 플랫폼인 누리넷 추진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실무분과 개편 관련입니다. 지난 2차 회의 때 행정기획분과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안내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희 사회복지행사 추진 관련 방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행정기획분과원들과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본 건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보공유플랫폼 가칭 누리넷이라고 해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저희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민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동대문 구청 안에 있는 복지자원 뿐만 아니라(나라에서 추진하는 정보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이 운영하는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개설을 내년에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플랫폼 개설이 되면 협의체 사무국이 운영을 하게

	될 거고, 추진은 2021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추진주체는 복지정책과와 협의체가 TF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자치행과에서 하는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내년 2022년도 추진사업을 현재 확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여기에 지원을 했고요, 6월 18일부터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원탁회의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대면으로 원탁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게 어렵다보니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누리넷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을 간단하게 보시면 저희 누리넷이 어떤 의도로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잘 들리셨나요? 보신 바와 같이 이 플랫폼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지만, 각 기관에서 올리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저희가 아이디를 배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로 들어오셔서 올리고 싶은 정보를 올리고, 공유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성남복지넷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곳이 세종시와 제주시였는데, 여기들은 벌써 한 2년 전부터 복지다움 또는 복지넷이라고 해서 복지정보공유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들을 플랫폼에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누리넷이 어떻게 구축할 것이다. 이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계획은 짰지만,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우리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을 넣거나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서로 같이 협업을 해나가며 구축할 계획입니다. 일단 제가 짠 것은 공유복지와 복지소식, 복지정보 세 파트로 나누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협치라는 것이 민관이 협력해서 주민들의 협업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민들이 등록을 하면 공감이나 댓글 등을 통해 이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한 부분으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넣으면 어떨까 했습니다. 이 외에 관내 모든 복지기관의 자원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복지정보가 한 축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 지금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벤트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복지소식을 한 축으로 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 가능한 예산은 일 억

	입니다. 이 중 용역비가 7000만원이고 이 외에 행사비로 3000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5월에 자치행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회의자료의 프로세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제는 우선순위 의제 선정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 단계 전입니다. 우선순위 투표 선정이 6월18일부터 23일까지인데,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저희 사업에 투표를 해주셔야 우선순위 의제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구의 경우 아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러한 자체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더 크게 하고 더 늘리고,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2번째는 실무분과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개 분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행정기획분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7개 분과가 다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분과가 있고 많이 더딘 분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기획분과를 중심으로 분과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할 계획입니다. 행정기획분과는 사회복지행사 등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고, 협의체 발전 방향의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을 위한 브레인 뱅크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분과는 유명환 부장님이 계속 고생을 해주셔야할 거 같구요, 나머지 분과위원님들 다들 너무 바쁘신데 흔쾌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저번에 행정기획분과가 모여서 사회복지 행사 추진 관련해서 협의했는데요, 거의 다 백신 맞으신 거죠? 백신을 다 맞으셨다고는 해도 앞으로 코로나 추이를 확신할 수가 없고, 지금 복지관들이 다 평가 기간이세요. 그래서 11월쯤에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인데,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현장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기관별 영화 관람을 한다던가, 한방 진흥센터가 만원의 행복을 재개하면 이런 쪽으로 갈 예정이고요, 만약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을 한다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연주가 있는 클래식 인문학이라든지, 팀빌딩 벽면아트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9월7일 사회복지대회와 박람회를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기관별로 표창만 했는데요, 올해는 온오프라인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기본 안건이 10분정도 관내 기관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박람회를 운영하지 못하게 돼서 동대문구 관내 기관 정보와 각 기관에서는 하는 일들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대신하여 틀어주고, 추후에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신규 교육자나 방문자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얘기가 나오셔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도 가능한 한 유튜브와 줌을 동시에 연결해서 표창수여식을 간단하게 진행하고 각 기관에서도 줌을 통해서 멀리서나마 서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박람회와 사회복지대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 손 흔들기 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다 이해하셨으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카톡이나 연락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인사말씀 남겨주세요!